



페르시아灣의 8年戰爭

이란-이라크 休戰合議

진정한 平和 中東에 올것인가 戰後復舊 海外建設에 黃金期예고

이란과 이라크는 싸워야 할 必要가 없는 戰爭을 8年間이나 계속하여 왔다.

1980年 4月 9日 전쟁을 시작한 이래 이란·이라크 兩國은 수십萬大軍을 동원하여 총력전을 벌였다. 호르므즈해협이 봉쇄되고 페르시아灣의 波高가 최고조에 달하였을때 이 전쟁이 局地戰의 성격을 벗어나 국제분쟁으로 飛火될 위험이 크다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란·이라크戰의 양상은 그동안-양국의 兵力增加에 따른 전쟁격화-페르시아灣을 항해하는 油槽船의 무차별공격-美國 등 서방 국가들의 페灣봉쇄- 이를 돌파하기 위한 이란의 中東 주변국가에 대한 공격으로 발전되어 결과적으로 美蘇의 직접개입-으로 예상이 되었다.

이러한 우려가 高潮된 가운데 1987년 UN이 마련한 休戰案을 이라크가 동의하여 1年간의 노력으로 이란이 이를 받아들여 「先休戰 後協商」이 이루어져 8月 20日 休戰이 선포되고, UN 케야르 사무총장의 중재로 협상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UN 休戰案을 두나라에서 수락하였다 하더라도 兩國의 敵對關係가 곧바로 和解나 平和關係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이란·이라크戰은 단순한 領土紛爭의 차원을 넘어선 이른바 「聖域」으로 까지 호메니

翁에 의해 督戰되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평화정착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休戰 선포후에 몇차례에 걸친 協商에서 全面休戰 敵對關係의 종식, 그리고 國境線안으로 각각 철군할 것을 議題로 다루어 졌으나, 戰爭責任문제, 水路문제 등이 가로놓여 진전을 보지 못하고 戰線에서는 銃聲이 들려오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는 형편이다.

○ 그러나 이란·이라크의 8年間の 長期消耗戰이 남긴 교훈은 양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란·이라크의 休戰合意는 국제여론의 압력도 높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이상 戰爭을 계속할 수 없으리 만큼 양국의 경제가 극도로 疲폐해 졌다는 점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쟁을 통해서 국민은 지치고 國力은 탕진되어 이제 다시 전쟁을 계속할 힘의 바탕이 없어진 것이다.

페르시아灣의 戰雲은 이제 서서히 가시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서로가 치명상을 주기 위하여 주요 基幹産業을 중심으로 집중포격을 가했으며 그 결과 注力事業인 石油採鑛시설, 積荷 輸送시설이 상당부분 파괴되고 마비되었다.

이와같은 전쟁의 상처를 완전히 씻어내기 위

해서는 이란은 앞으로 30年, 이라크는 10年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복구에 투입되는 자금도 엄청나, 이란은 800億달러, 이라크는 300億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서방경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이란의 경우 복구사업이 시작되면 우선 原油 수출능력 증대를 위한 原油生産基地 정비 및 새로운 採油場 건설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라크의 폭격으로 아바만, 이스파한, 시라즈, 테헤란, 바크타란地域의 精油基地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카크島의 原油施設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진에 의해 건설중이던 나르간강 가스精製所, 日本이 건설중이던 반다르호메니港의 石油化學團地 그밖에 브세르의 핵발전소 건설을 도중에 중단한 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도 이란의 폭격으로 포반도의 石油船積場이 전파되고 바스라의 精油所, 항만시설, 수도공급설비가 상당부분 無用之物이 되고 말았다.

이라크는 終戰이 되면 이같은 파괴된 시설의 복구와 함께 기간산업인 港灣, 댐건설, 道路, 送油管, 水力發電所 등 6次 5個年計劃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 ○

따라서 세계각국은 휴전 이후의 두나라의 復舊事業 및 OPEC의 向方 그리고 油價의 전망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전쟁피해를 감수해 가며 이란과 이라크의 건설작업장을 지켜왔다. 우리의 技術水準과 노동능력은 두나라의 복구사업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정부에서는 李鳳瑞 동력자원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투자 기술분야의 관계관으로 구성된 복구시찰단이 9月 7日부터 5日間에 걸쳐 이란 현지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돌아왔다. 이를 계기로 그간에 침체되었던 中東경기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 ○

한편 이란·이라크는 이같은 대규모 전후복구 사업을 위한 財源調達の 수단으로서 原油 增産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양국의 原油增産은 세계원유시장의 油價下落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아 OPEC회원국들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현재 OPEC의 1日生産량은 총 1,850萬배럴로 기준쿼터보다 약 200萬배럴을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라크는 쿼터량 153萬배럴의 2배에 가까운 236萬 7,000 배럴을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 파괴된 海上石油시설을 복구하여 100萬배럴을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 이란도 100萬배럴이상 증산할 것으로 보여져 油價下落은 피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물론 이란·이라크의 休戰으로 OPEC의 결속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油價引上案이 추진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오랜 역사속에 누적되어 온 이란과 이라크의 민족감정, 그리고 이란과 핵심을 이루고 있는 GCC(페르시아灣協力會議) 국가들과의 舊怨이 단순히 休戰協定 하나만으로 쉽게 해소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中東의 석유전문가들도 이란·이라크의 休戰으로 OPEC의 단결이 강화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따라서 OPEC의 公示油價인 18달러線의 유지는 불가능하며 下落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이 지난 9月 2日 OPEC의 油價는 배럴당 13.05달러로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관련, 지난 8月 3일에 개최된 OPEC 油價監視委員會가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자 OPEC는 9월에 다시 개최할 예정이고 11월에는 정기총회를 열어 계속 油價安定 및 산유국 쿼터준수를 토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란과 다른 회원국간에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OPEC의 힘 만으로 油價를 끌어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이란·이라크의 終戰은 우리 經濟界와 에너지界에 中東의 黃金期를 예고하는 것이며 戰後復舊사업과 油價安定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編輯室)